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7. 10. 12.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9.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 Korea's Accounting and Audit Reform Acts (KARA)
 - 이번의 「회계개혁 법률」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 온 개혁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 일각에서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번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함
 - *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
(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 우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주 낮아졌고
 - 시장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음
 - 또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

-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췄음
 -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오늘 자리는 **학계와 현장**에서 우리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과, 기업측을 대표해서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상공회의소** 분들을 모셨음
 - **역사적인 회계개혁**이 우리 기업과 회계감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 「2017 회계개혁」의 의의

- “회계”는 “accounting”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account)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묻기 위한 도구임
-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기업 또는 국가의 **홍망성쇠**가 재무적 책임성,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투명한 회계가 사회문화로 정착된 국가는 안정된 가운데 시장도 융성하였으나,
 -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해지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때로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음

- 미국은 '01년 엔론, 월드컴 등 잇따른 대형 회계 스캔들로 자본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1934년 증권거래법 제정 이래 최대 개혁으로 평가되는 「SOX법」을 제정('02년)한 바 있음
 - 강화된 규제로 기업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한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인해 **대규모 분식회계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 * 6년 경과 후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하는 의무 ('06년 도입되었으나 감사보수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11년 폐지됨)
 - 최근까지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임
-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부실회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 ① 첫째로,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됨

-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공고**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 감사보수를 정상화하려면 강력한 교정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i) 그동안 제재·감시 수단으로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던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법인에 전면 적용되며,

(ii) 정부로부터 인증받지(registered)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됨

② 둘째,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됨

- 그동안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업이나 회계법인 모두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임

(i)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없이 분식금액 등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될 것이며,

(ii) 회계부정이 있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가 가능해짐

③ 셋째,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 이해관계자 보호 및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 전반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규율이 훨씬 강화됨
- 회계법인도 기존에 자율규제로 운영해 온 감사품질관리에 대해 법적 통제를 받게 됨

④ 마지막으로,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과제

가. 정부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

-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라고 말한 바 있음
 - 현행 제도의 혜택을 보는 자는 개혁에 강하게 저항하지만 개혁의 조력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의미임

- 이번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함

① 특히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는 기업계와 회계법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파격적인 제도인 만큼 효율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이 매우 중요함

- 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이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대상 선정방법, 기업과 회계법인 간 매칭 등 제도 운영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함
- ② 회계법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만큼 지정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사인등록제의 설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③ 또한,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업이 이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② 감리와 제재의 집행은 보다 엄정하고, 일관되게 할 것임

① 우선 금감원의 감리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여 효율화하겠음

- 우리나라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 감리인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경향이 많지만,

금감원 조직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의 문제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함

- 감리대상 선정에서부터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에 이르는 업무의 전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개혁의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있어

회계부정에 대한 심판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임

이번에 신설된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회사, 회계법인) 제재, 내부자 신고제도 등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특히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음

- 다른 한편으로, 제재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음

③ 필요하다면,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계개혁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나. 기업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이번 회계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임

-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스스로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회계투명성 제고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임

① 앞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주총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회계처리 관련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상장협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람

②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이 강화되는 만큼, 상공회의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과 회계정보 공개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③ 또한,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회계담당자 등록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장협, 코스닥협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 회계담당자 경력, 교육훈련 성과 등 개별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실하게 모아져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다. 회계법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및 감사 품질 제고

-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회계업계 이익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을 떠나 회계법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 시장질서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을 키워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 ① 새로운 제도가 감사의 독립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회계업계 스스로 기존의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우리 회계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 ② 회계감사의 질은 회계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감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앞으로 회계감사는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므로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③ 한공회는 감사품질관리기준 마련, 핵심감사제 도입 등을 위한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 회계처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교육 지원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4 맺음말

- 내생적 경제성장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폴 로머(P.Romer)는 “위기는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A crisis is a terrible thing to waste)”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의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에서부터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였음
 - 기업 경영진과 회계법인의 시장에 대한 기만이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가고,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르면서 알게 되었음
- 이번 회계개혁 법안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였음
 -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회계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회계업계 역시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외부감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았음

○ 외감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을 전면 정비**해야 하고,

기업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 및 감사품질을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준비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음

○ '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변화이므로
시장에서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이미 지금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우리 기업들과 회계산업 종사자들이
변화의 큰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준비함으로써

○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일대 도약(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끝)